



비주얼씨어터컴퍼니   
Visual Theater Company CCOT  
[www.visualtheater.net](http://www.visualtheater.net)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 선정작

회화, 영상, 설치, 라이브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가 하나로 통합된 비주얼 씨어터!

페인팅퍼포먼스 프로젝트

In the paint, Dance  
+ 자화상 (ver.2010)

# 두! 니의 벽



2010. 5. 28 > 5. 30  
금 8시 | 토 4시, 7시 | 일 4시

씨어터제로

주최 |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 주관 |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   
후원 | 장소협찬 | theater ZERO | 기획 | 코르코르디움  
티켓 | 20,000 원 | 예매 | 티켓파크 (1544-1555), 씨어터제로 (02-338-9240)  
문의 | (02) 889-3561, 3562 | [www.visualtheater.net](http://www.visualtheater.net)



이철성 / 창작, 연출, 출연  
Visual Theater Company '꽃' 대표  
체험예술공간 '꽃밭' 대표  
창작자, 연출자, 공연자, 시인  
서울대학교 불문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  
이스라엘 예루살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졸업  
[주요경력] <페인팅퍼포먼스 '자화상'>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  
<그림자로부터>, <어머니의 장례식> 외 다수 창작/연출/출연

연출의 글  
최근에 말 그대로 '빈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어 있어 쓸쓸하고 비어 있어 어둑하더군요. 그런데 그 집에서 바로 나오지 못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점점 그 집이 말을 하고 그 어둠이 무언가를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 집이 숨겨놓은 과거의 비밀들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제 개인의 오래된 기억들, 나를 만지고 간 사람들, 그리고 상처, 그리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빈 것'의 소중함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술 또한 그러한 것이겠지요. 처음엔 예술에 목숨을 걸다가, 점점 삶이 보이고, 이젠 일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술은 그냥 목수의 노동처럼 일상의 행위인 것이지요. 그 행위에 거대한 명분을 담지 않습니다. 일상을 굴러가고 즐겁게 만드는 땀, 인간들 사이의 소통, 노동현장 주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런 것이겠지요.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이십년의 나이를 먹었고, 그 자식뻘이 되는 '체험예술공간 꽃밭'은 아직 어린 나이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성장해 온 과정은,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과정 자체였습니다. 굴다리, 서울역, 재래시장 등 수많은 대안공간과 야외, 소외된 일상적 공간이 공연·전시·교육을 통해서 예술적 공간으로 변하고, 일상을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이 예술의 수혜자로, 또 적극적 예술행위자로 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술가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되었을 것 같으나 등등.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전과 달리 어떤 낯설음을 느낍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죠. 예술이란 말은 하나의 망상이 아닐까요. 예술은 없습니다. 단지 소통을 갈망하는 외로운 인간들이 있을 뿐. 인간이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면, 일상의 많은 것들이 예술이겠지요. 예술인이 일상인이 되고, 일상의 사람들이 예술가로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하여,  
다 함께 침묵!  
다시,  
빈 것들 속으로...



2010년,  
"꽃"이 그리는  
페인팅 퍼포먼스  
프로젝트!!

벽 위에 그려지는  
나, 너, 우리들의  
그림 즐기기

### Painting Performance # 1 *In the Paint, Dance*

작/연출\_ 이철성  
출연\_ 이철성, 이승준

2003 이스라엘 마라톤 국장 초연  
2006 과천한마당축제 공식 초청  
2009 두산아트센터 공동기획 Space111공연

흰 벽에 그려지는 검은 선들 !!

가두려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 그 둘이 벌이는 싸움과 아이러니  
그리고 싸움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축제 -



흰 벽 위에 그려지는 실존에 대한 아이러니 !  
그림을 그리며 '나' 찾아가는 여행 -

몸과 페인팅 이외에 시, 영상, 설치, 라이브 음악과 소리 퍼포먼스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되면서 선보이며 국내외 호평을 받은 <자화상>이 2010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거대한 벽에 자화상을 그리는 과정을 주 구조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자신의 실체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벽을 마주할 때의 자신과의 갈등, 자신과의 싸움, 벽과 사회와의 싸움을 통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 Painting Performance # 2 *자화상 (Ver.2010)*

작/연출\_ 이철성  
출연\_ 이철성, 이정훈, 박종근

2007,2008 과천한마당축제 공식 초청장  
2009 안산 거리극축제 공식 초청작  
2009 살롱 거리극축제 공식 참가작 (프랑스)  
2009 모를레 거리극축제 공식 초청작 (프랑스)  
2009 서울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  
다원예술분야 선정작

| 모든 사람들

| 연출\_ 이철성 | 출연\_ 이철성, 이정훈, 박종근, 이승준 | 음악\_ 이정훈, 박종근 | 설치 조명\_ 오준영 | 영상\_ 허재형  
| 기획\_ 이정은 | 그래픽디자인\_ KoPAS 강자은 | 홍보/마케팅\_ 코르코르디움, 씨어터제로



## In the Paint, Dance

Creator / Director : Lee Cheol-Sung

Duration : 15 mins

Performers : Lee Cheol-Sung, Lee Sung-Joon

2009 \_ Doosan Art Center Space 111  
2006 Gwacheon Hanmadang Festival  
(Official Invitation) \_ Gwacheon, Korea  
2003 Marathon Theater, Jerusalem, Israel

Painting black line on the white wall!

Irony about the struggle between the one who lock up and another who escape from imprisonment.

Finally, dance for clearance on the wall!

## Painting Performance <The Self-portrait>

Creator / Director : Lee Cheol-Sung

Duration : 40 mins

Performers : Lee Cheol-Sung, Lee Jung-Hoon etc.  
Stage Art Director & Lightening Director : Oh Jun-Young  
Space : Alternative spaces & Outdoor preferred

2010 Arts Council Korea's choice \_ Theater ZERO  
2009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choice \_ Doosan Art Center Space 111

2009 Festival des Arts de la rue (Official Invitation) \_ Morlaix, France

2009 Chalon dans la Rue (Off-Selection) \_ Chalon sur Saone, France  
2009 Ansan International Street Arts Festival (Official Invitation) \_ Ansan, Korea

2007,2008 Gwacheon Hanmadang Festival (Official Invitation) \_ Gwacheo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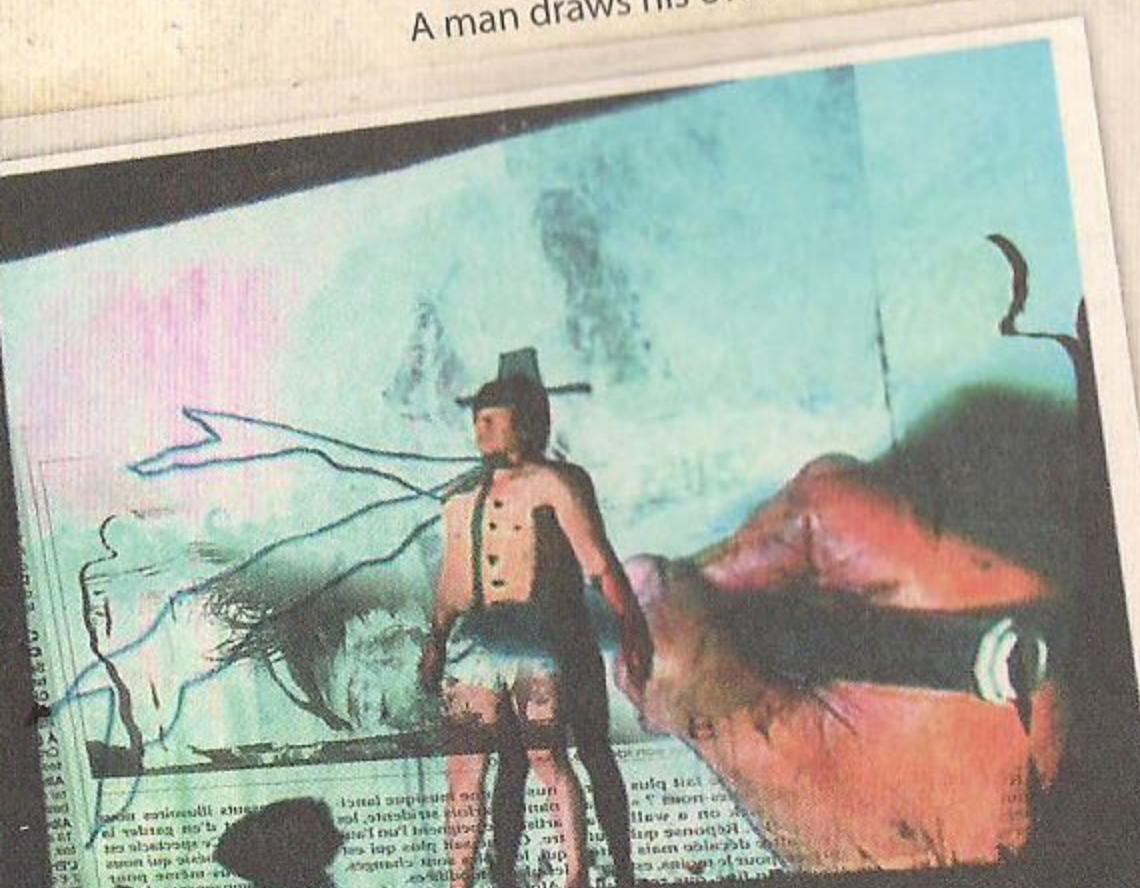
200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choice \_ Moonji Cultural Institute

" Painting Journey for Looking for Oneself " - Painting, Poem, Video, Live music, Performance

"A dream of a futile desire drawn on the white wall!"

A man draws his own confession against himself, the society and the world outside on the white wall. The struggle starts between the painter who draws and the figure in the picture. The painter and the figure are the self-portrait of each other and furthermore the reflection of us in this modern society.

This work is the performance with the fresh artistic material, such as painting, video, body, live music, poem etc. Lee Cheol-Sung, a director of 'CCOT' tries to reconcile and connect all Kinds of arts for our portrait.



## Review

Samedi 25 juillet 2009

Chalondanslarue

# THEÂTRE DANS LA RUE

CIE VISUALTHEATER. (Performance artistique)

## The self-portrait

Mur, peinture, vidéo, musique, corps, poésie, tous les arts sont présents pour faire le portrait de l'Homme. Sans oublier l'intelligence et la sensibilité de cette magnifique compagnie. À déguster.

Qui sommes-nous ? Interrogation philosophique qui traverse l'humanité et qui nous saute au visage ici. Cette compagnie coréenne nous emmène sur les rives de notre tragique condition humaine. « Je, est un autre » disait Rimbaud, « I am you » nous disent les deux performers. Par un jeu savant d'ombres projetées sur un immense mur blanc, qui ne le restera pas longtemps, les artistes revisitent notre présence humaine. La violence du propos est nuancée par des touches d'humour, un clin d'œil à James Bond, qui apparaît loin de son image d'homme gonflé de certitudes, un pauvre militaire, clown

À la recherche de son identité. Photo J-M.G.

triste qui ne fait plus peur. Qui sommes-nous ? « I'm a piss mark on a wall of a tunnel ». Réponse qui peut paraître décalée mais cette trace, pour le moins, est certaine. In fine, que reste-t-il de nous ? Becket n'est pas loin avec son Fin de partie. Armés de peinture, soutenus par une musique lancinante, parfois stridente, les artistes se peignent l'un l'autre. On ne sait plus qui est qui, les rôles sont changés, les places modifiées.

Albernum : Fétiche (à partir de 18 ans) : 2 € sur place à l'Arrivoir. L'Enjoliveur : Midi à la poêle : 2 € sur place, bâton bas. Géométrie variable/François Ruk : Dans la solitude champs de coton : gratuit billetterie du festival, tous les jours à partir de 10 heures. Lune et l'autre : les Puceaux sur place, place A. Caillau

J.M.G.

INFO Jardin de l'Arquebuse, ce soir à 23 h 30.



1 인간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 벽, 회화, 비디오, 음악, 신체, 시 등 모든 예술이 공존한다.  
이 훌륭한 극단의 지성과 감성을 잊지 말고 맛보시길 -

2 나는 타자다'라고 행보는 말했다.  
'나는 너다'라고 두 공연자는 말한다.

3 이 공연은 우리가 우리자신을 벗어나 인간성의 강물 위로  
합류하게 해주는 시적인 입맞춤이다.

LE JOURNAL DE SAÔNE-ET-LOIRE

## BILLETTERIE

### DU IN

Spectacles complets

Rasposo : Le Chant du dindon complet à toutes les séances.

Escarlate cirque : Devoril complot à toutes les séances.

Cie Ici Même : Vous laisserez nous guider par un(e) incroyable.

complet à toutes les séances.

Décor sonore : les chantiers de l'O.R.E.I. : complet à toutes les séances.

### DU OFF

Spectacles à billetterie gratuite ou payante

Cie 2 rien merci : Gramouille phone : 2 € sur place, Promenade Sainte-Marie.

À (Compagnie) : Observatoire Crosporg, réservation 30 minutes avant le début du spectacle.

AlbaTros (Cirque) : Sentez-vous manteau ! : 2 € sur place, bastion haut.

Albernum : Fétiche (à partir de 18 ans) : 2 € sur place à l'Arrivoir.

L'Enjoliveur : Midi à la poêle : 2 € sur place, bâton bas.

Géométrie variable/François Ruk : Dans la solitude champs de coton : gratuit billetterie du festival, tous les jours à partir de 10 heures.

Lune et l'autre : les Puceaux sur place, place A. Caillau

J.M.G.

# A SCULPTURE-SHADOW THEATER FROM THE SHADOW 조각 그림자극 [그림자로 뿐터]

2008 Gyeonggi Cultural Foundation's choice  
\_ Goyang Aram Nuri Arts Center Saerasae Digital Theater  
2008 Arko(Korea Art Council) Arts Theater's choice  
'2008 Arko.Challenge' \_ Arko Arts Theater  
2006 Suwon Hwaseong Fortress Theatre Festival (Official Invitation)  
\_ Suwon, Korea  
2005 PAMS Choice (PAMS /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2005 Seoul Marginal Theater Festival  
2004 Gwacheon Hanmadang Festival

Creator : Lee Cheol-Sung  
Director : Lee Cheol-Sung  
Performers : Lee Cheol-Sung, Kim Jin-Young  
Duration : 20'

##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었어" 그림자가 된 사내의 잊혀졌던 사랑 이야기

손전등과 조각인형들이 만들어내는 VISUAL THEATER! 조각그림자들의 특별한 환상!

사내가 빛을 던지자 조각들은 그의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하며 몇 개의 조각들과 손전등, 거대한 스크린이 함께

조각 그림자 이미지를 창조한다.

이 작품은, 그림자의 부각만을 강조해 오던 기존의 그림자극과는 달리, 공연자와 인형, 빛, 그리고 그림자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무대에 나와 관객에게 노출됨은 물론, 다양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색다르고 효과적이며 완성도 높은 무대 연출을 보여준다.

"현실-내면-기억-현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때로는 그로테스크하고 과장된, 때로는 아름답고 진실된 그림자를 통해 전개된다.

그림자는 현재와 내면의 반영임과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새로운 대안으로 작품의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활짝 열려있는 "그림자"라는 매개를 통한 재미있는 상상력을 동반하게 한다.

## 공연내용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던 사내는 우연히 조각 전시회를 방문한다.

조각들의 그림자를 통해 자기의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그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던 과거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로부터 삶을 다시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는다. 고통 받은 한 인간이 사랑을 통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감각적으로 담고 있으며,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실제 없는 외로움이 가져다 주는 극한 고립의 공간에 갇혀 있는 죽은 나무와 같은 자아가, 다시 한번 생명을 꽂피우는 근본을 간직하게 되는 순간을 만난다.

## A Flower on the Dead Tree ! - A man who becomes shadow

At an art exhibition, a shadow of sculpture drives a man, who was badly hurt by social violence and lost a meaning in his life, to start a journey into his memories.

In his memory, he found a woman who once gave him unconditional love and the memory gives him courage to face all the difficulties he is facing now in reality.

Through shadow images created by pieces of materials, flashlights and big screens, From the shadow tells a story how devastated one's heart can be cured by love. You will witness beautiful, sometimes grotesque, reflections of material pieces, and the story develops following the flow from reality, internal mind, and memory and to reality.



기면 인형오브제극

70-18

MASK PUPPET OBJECT THEATER  
Dream 70-18

2008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choice  
2006 Suwon Hwaseong Fortress Theatre Festival (Official Invitation)  
\_ Suwon, Korea  
2005 PAMS Choice (PAMS /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2005 Seoul Marginal Theater Festival  
2004 Gwacheon Hanmadang Festival

**"노파의 가면 뒤에 짓눌린 소녀의 얼굴" 소녀로 돌아가길 갈망하는, 나비가 된 노파 이야기 - <꿈70-18>**  
자신이 18세 적 소녀로 돌아가길 갈망하는 70세 노파의 꿈 이야기로 가면-인형으로 형상화된 노파와 소녀 사이의  
쫓고 쫓기는 싸움의 악몽이 이어진다. 인형처럼 움직이는 배우, 배우-인형을 움직이는 조작자,  
배우와 가면-인형 사이의 관계가 만드는 마술적 드라마처럼 완성된다.

## 공연내용

화창한 봄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잠에 빠진다. 꿈속에서 그녀는 열 여덟 살 적 자신의 모습을 본다.  
노파는 자신의 청춘을 갈망하며 소녀를 잡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소녀는 더 달아나려 몸부림치고  
마침내 노파는 소녀를 움켜쥐어 죽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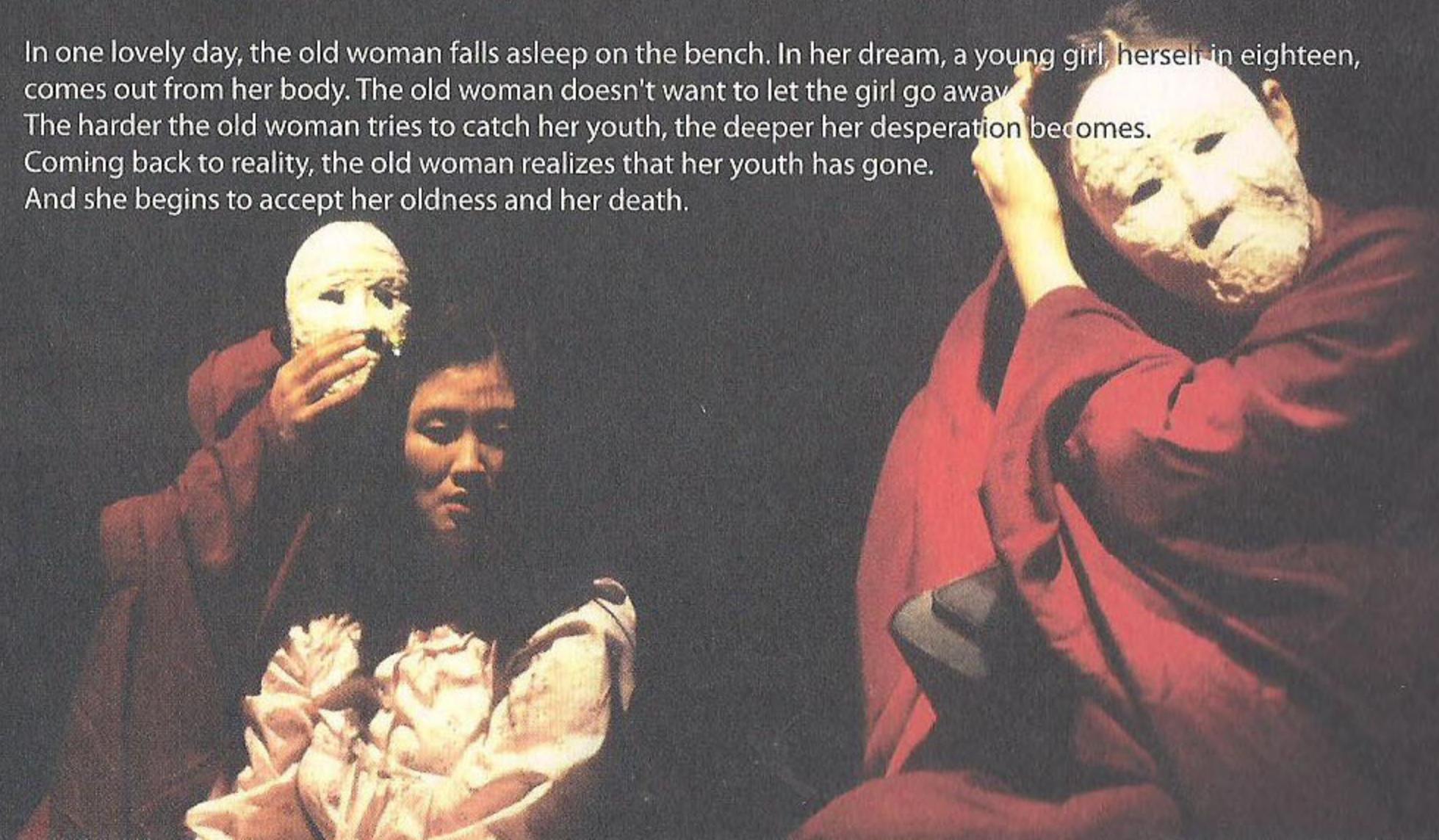
악몽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청춘은 가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황혼의 저녁,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선다.  
무언가 톡! 떨어지는 소리. 그녀 속에서 나비가 날아오른다. 늙음과 죽음, 그 숙명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한 노파의 슬픈 이야기.

**A girl whose face is crushed down by an old lady!  
-A Visual Theater with Mask-marionette, costume!**

By using a mask-puppet, we show a dream of an old woman who wants to return to her youth.  
A actor who moves like a puppet, a puppeteer who operates a actor-puppet,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  
and mask-puppet will make the work a magic.

**Despair on the bench! -A story of an old lady who becomes a butterfly**

In one lovely day, the old woman falls asleep on the bench. In her dream, a young girl, herself in eighteen, comes out from her body. The old woman doesn't want to let the girl go away. The harder the old woman tries to catch her youth, the deeper her desperation becomes. Coming back to reality, the old woman realizes that her youth has gone. And she begins to accept her oldness and her death.



시 퍼포먼스

# 늑대의 옷

Poetry Performance  
Visual Poems (The Clothes of Wolf)

|                |   |
|----------------|---|
| 창작·연출: 이철성     | 2009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 _안양 석수시장/ 과천 별양동 쉼터 공연, 경기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 |
| 출연: 이철성, 이정훈,  | 2009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 _2009 한국실험예술제 조경공연                                  |
| 김미나, 김진영 외     | 2008 시 퍼포먼스 [차향기] _김수영 시인 40주기 추모 기념식 및 공연 / 민음사 주최                     |
| 공간·오브제: 오준영    | 2008 시 퍼포먼스 [차향기] _문자문화원 사이 /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후원                             |
| 음악연주: 이정훈, 김미나 | 2007 시 퍼포먼스 [차향기] _과천 관문로 거리숲 굴다리, 경기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          |
| 음향: 신수경        | 2007 시 퍼포먼스 [차향기] _문자문화원 사이 개원기념 전시공연                                   |
|                | 2007 시 퍼포먼스 [차향기] _아트센터 나비  |
|                | 2006 시 퍼포먼스 [소리 소문 없이 그것은 왔다] _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콘서트                          |
|                | 2006 시 퍼포먼스 [나는 하늘이다] _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Open the Door, 스톤앤워터                |

시가 단순히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이야기라는 문학적 재료 외에 공간, 오브제, 회화, 설치, 영상 등의 시각 예술적 재료, 음악과 소리의 라이브 퍼포먼스 등이 서로 넘나들면서 visual poem, 즉 보여지는, 공연되는 시를 창작했다.

시 퍼포먼스는 장르로 나누어진 벽을 허물어 새로운 공연미학을 만들었으며, 각각을 향유했던 각 장르의 예술향유자들에게 좀 더 신선한 통합을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향유자에게 깊이 있는 시의 울림을 선사하는 것이다.

## 문학+시각예술+음악+공연예술 / 공연되는 詩, Visual Poem의 새로운 퍼포먼스 !!

'詩 퍼포먼스'는 기존에 시와 음악, 미술 등이 배경이 되어 낭독되어가 읽혀지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시낭송회 등의 개념을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연되는 시', '보여지는 시'를 기본 컨셉으로 시작된 새로운 개념의 퍼포먼스이다.  
'시'라는 문학장르가 텍스트의 틀을 벗어나 창작 초기 단계에서 문학(시, 이야기) + 시각예술(영상, 설치, 페인팅) + 공연예술(몸, 오브제) + 음악 (라이브 퍼포먼스)가 장르를 초월하여 결합된 형태로 새로운 '詩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었다.

## 시장에서, 빌딩 숲 사이에서, 굴다리에서, 대안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울리는 [시] 즐기기 !!

'시퍼포먼스'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다양성과 그 특징이 함께 결합하여 새로운 감흥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전의 야외, 시장, 사무실, 대안공간 등 기존의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공연에 대한 공간의 기본 인식을 버리고 어느 공간이든 그 곳을 활용하여 '시 퍼포먼스'라는 단편공연 또는 여러 편의 모음 공연을 통해 작품과 결합하여 기존의 특정 공간에서 예술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피어남으로 특정한 공간이 되어 다가오는 일어나는 새로운 공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편의 시 !! 또는 여러 편의 시 !! 공간과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성 그리고 조합이 될 수 있는 시 모음집 !!

'시퍼포먼스'는 시간과 공간 또는 그에 따른 상황에 따라 1~2편, 또는 4~5편 등 다양한 형태로 조합이 가능하며 주제 또는 성격에 따라 모음시집의 'Visual Poem'의 작품을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한 독특한 시 모음집 공연 형태이다.  
다양한 구성은 언제 어디서든 보다 시간, 공간, 상황에 적합한 공연을 이끌어 낸다.

공연내용 약 5개의 Visual Poem의 작품집 형태.

Visual Poem No.1 늑대의 옷

Visual Poem No.2 가난한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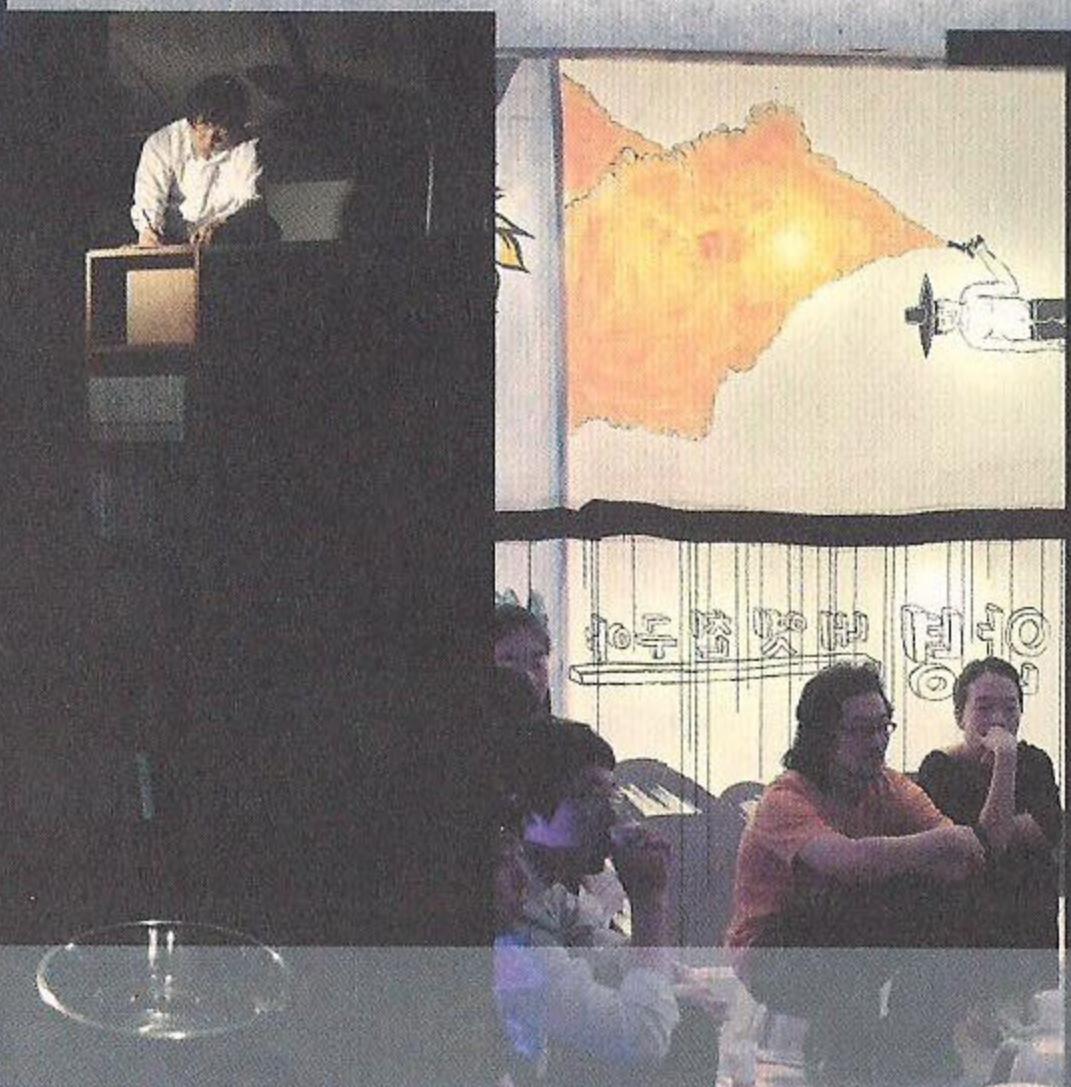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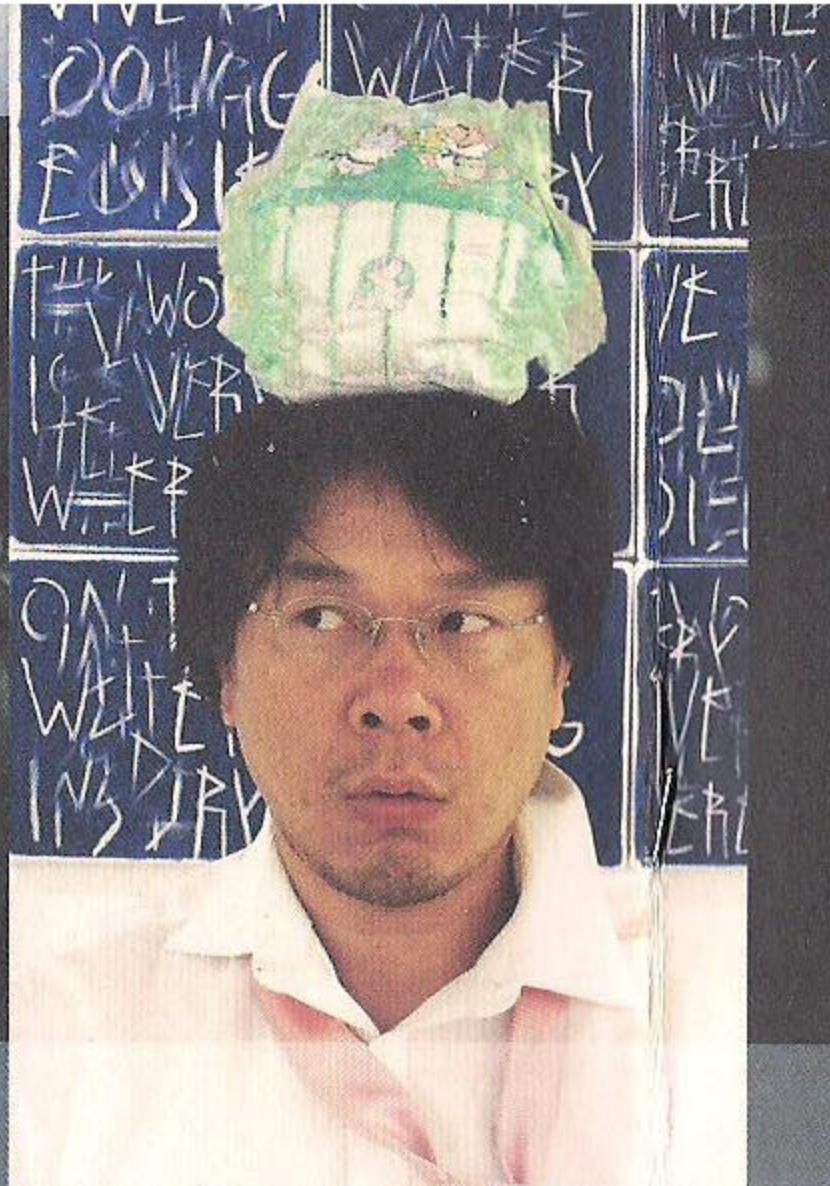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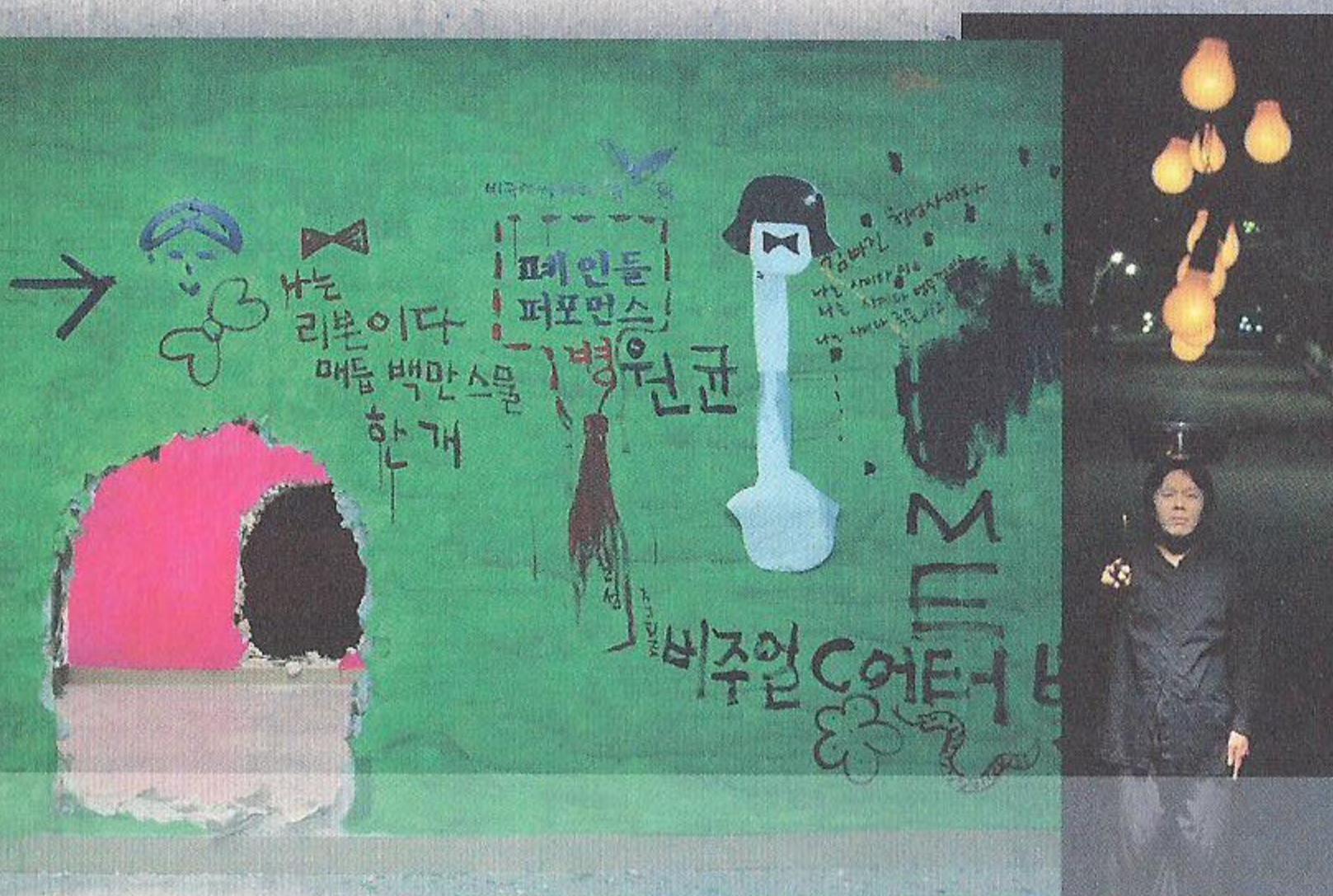
Visual Poem No.3 소리 소문 없이 그것은 왔다

Visual Poem No.4 차향기

Visual Poem No.5 The Water of Time

"Poetry Performance" consists of 2~5 visual poems, which is not a public reading. Visual poems is a kind of interdisciplinary performance by combination and artistic communication of literary works, live music, fine arts, performing art etc. Lee Cheol-Sung, the creator and director is also poet.





'꽃'은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공연예술학교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 김진영을 주축으로 창단되어 2004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공연예술단체입니다.

꽃은 시각적으로 강한 예술 재료들을 이용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결합된 작품을 창작하는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합니다. 또한 꽃은 이미 쓰여진 텍스트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연극이 아닌, 예술재료의 실험을 통해 작품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재료극 Material Theater를 추구합니다.

대상이 되는 예술재료는 공간, 몸, 빛, 소리, 오브제, 영상, 그리기 재료,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입니다. 꽃은 연극도 개인 창작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작품을 창작합니다. 창작, 연출, 출연, 디자인, 제작, 작곡 등 제 영역을 일인 혹은 소수가 모두 책임지고 창작하는 셀프 퍼포먼스 Self-Performance를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연극은 기동성과 창의성을 획득하며, 작가 개인의 내밀한 세계가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진실하게 형상화 됩니다. 꽃은 이러한 작가주의적 연극을 추구합니다.

#### [주요 레파토리]

비디오 영상극 <어머니의 장례식>, 조각그림자극 <그림자로부터>, 가면 인형 의상 오브제극 <꿈 70-18>, 페인팅 퍼포먼스 <In the Paint, Dance>,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오브제 광대극 <거저귀맨>, 시 퍼포먼스 <차향기> 등

**'꽃'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꽃은 시각적인 이미지와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은 의미와 메시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그 이미지와 향기로 소통하기 원합니다.  
공연예술은 하룻저녁 활짝 피었다 지는 꽃처럼 그 시작은 어여쁘고, 그 절정은 화려하고, 그 끝은 쟁쟁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은 예술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품으려 합니다.

#### Visual Theater Company CCOT

'Visual Theater Company CCOT'(Korea) was established in Jerusalem in 2000 by LEE Cheol-Sung and KIM Jin-Young, both who then was studying at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Israel. Since the establishment, 'CCOT' has presented their visual theater works at international stages (Germany, France, Israel, Rumania, Japan, India and Korea).

'CCOT' is the community of theater makers, performers, painters and musicians. 'CCOT' has worked on alternative spaces and outdoor, pursuing visual theater, material theater, interdisciplinary theater, and self-performance. 'CCOT' stands for 'The Flower' in Korean. (The birth and the death of flower resemble exactly the ones of performance.)

#### [Works]

<Mother's Funeral> the video image theater  
<From the Shadow> the shadow theater of sculpture-puppet  
<Dream70-18> Mask Puppet Object Theater  
<Diaper Man> the object theater  
Painting Performance <In the Paint, Dance>  
Painting Performance <The Self-portrait>  
Poetry Performance <Visual Poems - The Clothes of Wolf> etc.

#### Lee Cheol-Sung (Director / Creator)

LEE Cheol-Sung, the director of the company, studied the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at faculty and graduation school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jored in directing and acting in 2003 at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after having studied directing in 1996 at Performing Arts Academy, organized by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He has learned Korean traditional dances as well as various types of traditional performances of the Middle East, Indonesia and the West in Korea, Germany and Israel. He is a poet and published several his poetry books.

VISUAL  
THEATER COMPANY  
비연극단 CCOT

- |      |  |
|------|--|
| 2010 | <페인팅 퍼포먼스 프로젝트 '두개의 벽' ( '자화상', 'In the Paint, Dance') / 씨어터 제로<b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 충진 지원 선정장 |
| 2009 |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 안양 석수시장, 과천별양동쉼터<br>/ 경기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                                   |
| 2009 |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In the Paint, Dance> 두산아트센터 공동기획공연 Space 111<br>/ 서울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      |
| 2009 |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모를레 거리극축제 공식 초청작 (프랑스)  |
| 2009 |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샬롱 거리극축제 공식 참가작 (프랑스)   |
| 2009 |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안산거리극축제 공식 초청작  |
| 2008 | <그림자로부터>&<어머니의 장례식2>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br>/ 경기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                                  |
| 2008 |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과천한마당축제 공식 초청작  |
| 2008 | <詩 퍼포먼스 '차향기'> 문지문화원 사이 공연   |
| 2008 | <그림자로부터>&<어머니의 장례식2> 야르코예술극장 '2008 Arko Challenge' 기획 프로그램   |
| 2007 |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과천한마당축제 공식초청, 고양 행주문화제 공식초청   |
| 2007 | <벽 in open space at 2030 project – 서울역> 서울역 / 문예진흥기금 다원예술분야 '새장르 공공예술' 선정                            |
| 2007 | <시 퍼포먼스 '차향기'> 과천 관문로 거리숲 / 경기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  |
| 2007 | [페인팅 퍼포먼스 '벽'] 문지문화원 사이 / 서울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  |
| 2007 | [종이창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선정 프로그램  |
| 2006 | [어머니의 장례식] 일본 도쿄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Physical Theater Festival) 공식초청  |
| 2006 | [페인팅 퍼포먼스 '벽'] 과천한마당축제 공식 초청   |
| 2006 | [그림자로부터], [꿈70-18]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공식초청  |
| 2006 | [기저귀 Man] 서울변방연극제 공식초청   |
| 2006 | [꽃잎-깨지는 얼굴]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공연 ('그림자로부터', '꿈 70-18', '어머니의 장례식')  |
| 2006 | [그림자로부터] 공연과 조각그림자 극놀이]] 문예진흥기금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선정  |
| 2006 | 전국문화관연합회 우수예술교육프로그램 선정, '연극놀이_나는 오브제다!'  |
| 2005 | [꽃잎-깨지는 얼굴] 서울아트마켓 2005 PAMS Choice 선정 ('그림자로부터', '꿈 70-18', '어머니의 장례식')                             |
| 2005 | [그림자로부터] 서울변방연극제 공식초청  |
| 2004 | [그림자로부터] 코엑스 아트홀 /아시아 예술 축제연맹 AAPAF 해외진출용 우수공연 쇼케이스  |
| 2004 | [그림자로부터]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 과천한마당 축제 공식 초청   |
| 2004 | [그림자로부터],[어머니의 장례식]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 / 국립극장 공동 주최   |
| 2003 | [태초에 하나가 있었다] 베이트 쉬무엘 극장 / 이스라엘  |
| 2003 | [비닐속의 오페라] 하지라 극장 / 이스라엘 예루살렘  |
| 2003 | [어머니의 장례식] 마라톤 극장 / 이스라엘, 예루살렘   |
| 2002 | [태초에 하나가 있었다] ODEM연극페스티벌 공식초청 / 이스라엘, 예루살렘,  |
| 2002 | [태초에 하나가 있었다] THESPIS 국제학생연극페스티벌 공식초청 / 이스라엘, 예루살렘   |
| 2002 | [파우스트 프로젝트] SYNERGURA국제인형극페스티벌 공식초청 / 독일, 에르푸르트  |

